

초록번호 21-4

제 목	국 문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위한 의료보험경제지수 개발		
	영 문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Insurance Economic Index as a method of the rate adjustment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한중, 손명세, 박은철, 박웅섭, 최귀선*, 임종건, 지영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영 문	Han Joong Kim, Myongsei Sohn, Eun-Cheol Park, Woong-Sub Park, Kui-Son Choi*, Jonggun Lim, Youngkeon J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최귀선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본 연구는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을 산정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수가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한 의료보험경제지수를 개발하고, 실제 비용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보험경제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의료보험경제지수에 의한 방법과 기존 방법에 의한 수가 인상율을 비교, 새로운 의료보험수가 인상률 산정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에서는 3차 진료기관, 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 전염성병원), 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 의료보험경제지수와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보험경제지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자료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병원경영분석 중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연도별 수익자료와 비용자료,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수행한 '94년 의료수가 조정률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20개 의원의 비용자료이다.</p> <p>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수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용항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범주화하였다. 2단계에서는 구성된 비용범주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파악하고 파악된 비용범주별 구성비를 이용하여 기준가중치를 산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비용범주별로 비용변화를 가장 잘 반</p>				

영하는 거시경제지표를 선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위에서 산출한 비용범주별 구성비와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종별 의료보험경제지수와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보험경제지수를 산정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요인을 크게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의사인건비, 간호사·약사·기사 인건비, 기타 인건비, 국산품 및 대체가능품에 의한 재료비, 수입품에 의한 재료비, 국산품 및 대체가능품에 의한 감가상각 및 임차료, 수입품에 의한 감가상각 및 임차료, 동력비,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였다. 둘째, 전체 원가에서 각 비용항목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산출한 결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는 전체 원가에서 약 55%, 재료비는 약 15%, 관리비는 30%를 차지하였다. 셋째, 각 비용항목별 거시경제지표 선정결과, 의사인건비의 경우 전문가(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임금상승율, 간호사·약사·기사 인건비의 경우 전문가(생명과학 및 준보건전문가)임금상승율, 기타 인건비의 경우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임금상승율이 선정되었다. 국산품 및 대체가능품에 의한 재료비는 소비자물가지수 공업제품, 수입품에 의한 재료비는 수입물가지수 공산품의 기타화학, 동력비는 소비자물가지수 광열수도비, 국산품 및 대체가능품에 의한 감가상각 및 임차료는 소비자물가지수 보건의료, 수입품에 의한 감가상각 및 임차료는 수입물가지수 공산품, 기타 관리비는 소비자물가지수 식료품 제외가 거시경제지표로 선정되었다. 넷째, 파악된 각 비용항목별 비용구성비와 선정된 거시경제지표의 상호곱으로 의료기관종별 의료보험경제지수를 산출한 결과 '92년~'98년까지 평균 1.084의 인상을 보였으며, 실제 비용인상율과는 평균 2.30% 오차를 보였다. 다섯째, 의료기관종별 의료보험경제지수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보험경제지수는 '92년 1.137, '93년 1.079, '94년 1.097, '95년 1.052, '96년 1.101, '97년 1.080 '98년 1.036 이었다.

4. 고찰

현재 의료보험수가 조정은 정부와 의료단체의 요청에 의해 전문기관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수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을 잠정적으로 산출한 후,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상률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의료보험 수가인상으로 진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의 왜곡현상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적정 의료보험수가 인상률 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의료보험경제지수를 개발하였다. 비록 지수산정에 적용한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의료기관의 원가변동을 정확히 나타내는 경제지표가 없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연구자료에 대한 보완이 계속하여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인 의료보험수가 조정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